

상무소각장 반입 쓰레기 내용물 조사

주민협의체 “영향범위 확대해 달라” 실력행사

市 “수용 불가”…쓰레기 처리 대책 마련 고심

상무소각장의 영향범위를 둘러싼 광주시와 주민 간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무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올 초 포항공대 잠윤석 교수팀이 수행한 ‘상무소각장 환경성 영향조사’에 따라 소각장 영향범위를 반경 1.3km로 해 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지난 13일 소각장으로 반입되는 쓰레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이날 전수조사로 인해 쓰레기 처리가 자연되자 쓰레기 차량을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으로 유도하는 임시방편을 내놓았지만 뾰족한 방안이 없어 고심중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의 중재로 주민지원협의체와 4개월이 넘도록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타지역과의 형평성, 소각장 피해 연관성 미흡, 관련 예산 부족 등으로 영향범위를 주민지원협의체의 주장대로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주민지원협의체 회원 등 주민대표 50여 명은 14일 밤 전수조사 지속 및 대화 재개 여부를 논의해 결합할 예

정이다.

표찬 주민지원협의체 대표는 “주민지원협의체는 용역결과대로 영향 범위를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는 반면 광주시는 지원 범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등 논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해 강경한 의견을 가진 주민들이 있어 전수조사에 나선 것으로, 대화는 계속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이날 20여 대의 쓰레기 차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소각장에 반입돼서는 안 되는 의료 폐기물이나 스티로폼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주민지원 협의체가 전수조사를 계속할 경우 쓰레기 차량을 남구 양과동 쓰레기 매립장으로 보내 쓰레기 처리 지역을 최

소화하면서 주민지원협의체와 대화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화를 통해 지원 범위를 결정하기를 바란다”며 “반경 1.3km를 영향범위로 하게 되면 매년 속속으로 대규모 예산이 지원될 수밖에 없어 결국 광주시민의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상무소각장의 영향범위를 반경 300m로 할 경우 지원대상은 4개 아파트 단지 2224세대이지만 반경 1.3km로 확대될 경우 그 대상은 14개 단지 9887세대로 늘어나게 돼 낭비를 비롯한 관련 예산지원도 대폭 증가하게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순천 복선전철화 사업 조속 추진을”

광주시, 국토해양부 건의

광주시가 경전선의 광주~순천 구간(65km)에 대한 복선전철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해양부에 전달했다.

광주시는 14일 “국토해양부가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해 발표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에 따르면 경전선 광주~순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2020년 이후 검토 대상으로 밀려났으며 이는 정부의 ‘KTX

고속철도망 구축계획’과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경전선이 호남권과 동남권 간 광역 경제권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철도망임에도 광주~순천 복선전철화 사업은 2020년 이후로 미루면서 권역 내 노선인 충남 천안~조치원 복선전철은 2015년 이전 착수사업으로, 강원도 춘천~속초, 김천~거제 복선전철 신설 등을 2020년 이전 착수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도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전선 삼

랑진~순천 구간은 2014년까지 복선 전철화가 완료될 예정이지만 광주~

순천은 1930년 개통 이래 지금까지 노후화되고 굽곡 많은 단선으로 운행되고 있어 충분한 수요확보나 운행 효율성을 제고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순천 철도가 노후화돼 광주 지역 수출입 화물이 철도로 부산항과 광양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멀리 대전과 익산을 우회해 경부선과 전라선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정부가 이를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광주~순천 구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2012년 까지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를 반영시키기 위해 다각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국가철도 법 제4조에 의거해 향후 10년간 철도망 구축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담고 있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국토해양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최종안을 토대로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을 수립해 올해 말 고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문화부 자문단, 문화전당권역·송암산단 CGI센터·kdb생명빌딩 조사

광주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본격화

광주지역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투자진흥지구 자문단은 지난 12일 광주시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역 3곳을 방문, 현지를 확인했다.

이날 현지 확인은 광주시가 지난 9월 ▲옛 전남도청 주변 문화전당권역 ▲송암산단내 CGI센터권역 ▲kdb생명빌딩(옛 금호생명빌딩) 등 3개 권역 38만1458㎡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문화부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부는 지구개발 및 법률 전문가 9명으로 자문단을 구성,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에 대한 서면검토를 마쳤으며, 자문단 중 권영섭(국토연구원 위원회)씨 등 5명이 이날 광주를 찾았다.

투자진흥지구 자문단은 광주시청 2층 세미나실에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계획을 검증하고 실효성과 구체성을 확인했다. 이어 지정대상 3곳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투자진흥지구 대상지정의 기반시설과 현황 등을 점검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은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절차와 문화부의 지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조만간 투자진흥지구 지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산업 투자진흥지구는 광주시가 스타 문화기업을 유치해 문화산업 체 집적화를 유도하고, 기존 업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이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순신장군 동상 보수작업 시작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순신장군 동상은 보수, 보강작업을 위해 경기도 이천 보수공장으로 옮겨진 뒤 내달 22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다.

/연합뉴스

강운태 광주시장 출국

말레이시아 등 4국 방문

강운태 광주시장이 15일부터 22일까지 말레이시아와 독일, 영국, 벨기에에 방문한다.

강 시장은 첫 방문지인 말레이시아 말라카에서는 4억달러 규모의 LED 시장개척을 위한 교류보 확보에 주력하게 되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배터리 제조시설을 비롯한 2억1200만달러의 투자 MOU(양해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세계적 도시재생 모델로 인한 영국 에든버러시와는 양 지역 간 문화예술·경제·도시재생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호교류를 모색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시가 스타 문화기업을 유치해 문화산업 체 집적화를 유도하고, 기존 업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정책이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화정주공 재건축 새 컨소시엄 구성 추진

조합측 내일까지 접수

광주시와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오는 16일까지 2015년 광주유니버시아드(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 개발을 위한 새로운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해 성사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14일 “지난주 사업 참여를 포기한 삼성과 대림 외에 15곳의 건설업체에 16일 오후 2시까지 사업 참여 여부에 도급단계, 회사 일반 현황 등을 포함한 서류 일체를 접수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재건축조합에 사업 참여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밝혀온 이들업체들은 삼성·대림과 마찬가지로 광주시나 광주도시공사의 미분양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관계자는 “광주시나 도시공사의 고위간부가 이를 업체들을 직접 방문해 참여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광주U대회 선수촌 조성을 위해 삼성·대림·한양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협상을 벌여왔으나 최근 삼성·대림이 사업 불참을 통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日만정

- 김종우

또 아래저래 관심밖으로...

전남도, 여수박람회 등 국제행사 대비

관광기반시설 확충 등 2025억 원 투입

전남도는 14일 2012여수세계박람회 및 2013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 행사에 대비한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내년에 총 20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사업은 ▲영광군 관광지 조성(16억원) ▲목포 노벨평화상 기념관 건립(60억원) ▲순천 5000년 한국의 정원관(18억원) ▲나주 삼남대도 탐방로 조성(10억원) ▲곡성 섬진강 생태학습장 조성(23억원) ▲합평 범생태관(28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또 서해안권, 남해안관광 클러스터, 지리산권 등 3개 분야의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

부에서 130억원을 확보해 ▲목포 고하도 이충무공 역사테마파크 ▲보성 비봉공룡공원 개발 ▲진도 이순신 명량대첩 승전광장 조성 등 지역 관광 개발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소금하우스, 회진 수상가옥 등 특색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올해 107개 사업에 125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내년에도 스토리가 담긴 생태탐방로 조성 및 슬로시티 관광 상품 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이색적인 불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자기자 dok2000@kwangju.co.kr

남부대학교대학원 전기석·박사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석사	기계공학과/ 디지털경영정보학과/ 항정미용학과/ 한방제약개발학과/ 사회복지학과/ 음악학과/ 스포츠과학과
박사	기계공학과/ 디지털경영정보학과/ 항정미용학과/ 사회복지학과/ 대체의학과

【교육대학원】

석사	교육행정전공/ 유아교육전공/ 상담심리전공/ 영양교육전공/ 미용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	--

* 학부의 전공과 지원하는 부 대학원의 전공이 동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음 (단,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 미용교육전공, 조리교육전공, 중등학교 교정교사2급 취득(관련학부 졸업자에 한함)

※ 영양교육전공 영양학과 2급 취득(영양사면허증 취득자에 한함)

※ 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2급 취득(현직교원에 한함)

【보건경영대학원】

석사	간호학과/ 방사선학과/ 대체의학과/ 물리치료학과/ 언어치료학/ 각학과/언어치료/ 청각/ 치과/ 치료기기/ 의공학과
----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0년 11월 1일(월) ~ 11월 19(금)
- 면접전형 : 2010년 11월 26일(금)

【대학원 입학상담】

- ▶ 대학원교학실 : 062)970-0046 ~ 7 FAX : 062)970-0044
- ▶ 우편접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64-1 남부대학교 대학원교학실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http://graduate.nambu.ac.kr>)

2011학년도 남부대학교 정시모집 입학홍보처

월사접수 2010년 12월 18일 ~ 24일 062)970-0114

조루증 치료제 임상연구 참여자 모집

발기부전과 조루증을 동시에 겪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디폭세틴의 치료효능과 안전성을 알아보는 임상연구에 피험자를 모집합니다.

참여대상

- ◆ 만 20세 이상 남성으로 조루증과 발기부전을 함께 겪고 있는 분
- ◆ 최소 6개월 이상 고정적인 이성 파트너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분
- ◆ 발기부전 치료를 위해 최소 3개월 이상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해온 분
- ◆ 기타 임상시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여 동의한 지원자 중 신체 검사 및 기타검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분

임상시험 참여병원

- ◆ 전남대학교병원

본 연구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십시오.

Tel. 062-220-6710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한사람의 감정표로 온가족의 이름을 감정해드립니다.

숙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일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法人 星谷 傳統文化 研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 作名·鑑定 專門哲學院 010-7671-5623
위 치: 동구 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